

종이로 표현한 디지털 세상 만나 보세요

미리 보는 2016 광주비엔날레

<4> 참여작가 인터뷰-토미 스톡켈

종이로 만든 바위·돌맹이 'The Gwangju Rocks' 선배 돌맹이 24개로 이모티콘 24개 만들어 광주 시민들에 선물

최근 방문한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토미 스톡켈(Tommy Stöckel, 44·덴마크)이 머무는 작업실은 말 그대로 돌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약 25평(83m) 규모 작업실 바닥에는 A4용지가 가지런히 깔려 있고 그 위에 갈색, 회색 바위가 10여 개 놓여있었다. 바위는 마치 십수년 전 컴퓨터게임에서 본 듯한 각진 모습이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종이자투리는 작품 소재를 집적하게 했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아시아창작스튜디오에서 한창 작업 중인 토미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종이로 만든 바위, 돌맹이 작품 'The Gwangju Rocks'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4월 리서치를 위해 처음 광주를 방문했을 때 도시 곳곳에서 큰 자연석들을 볼 수 있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광주공원' 현판석, 알 수 없는 글자(한문)들이 새겨진 비석, 무등산 입석대 등이 신기했어요. 서부 유럽에서는 조각 등 가공을 하고 상징성이 있는 돌들만 볼 수 있거든요."

토미는 "바위"를 광주와 한국을 대변하는 대표 이미지로 보고 작품 주제로 결정했다. 또 지난 5월 광주전 일대에서 열린 '광주 유등축제'에서도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는 "유등축제가 가보니 종이로 만든 민화 캐릭터, 무등산 등을 볼 수 있었다"며 "생각지도 못했는데 광주에서 내 작업과 비슷한 작품들을 만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토미는 그동안 종이로 입체·설치 작품을 만들며 자연과 디지털을 조합하는 작업을 펼쳐왔다. 폴리곤(3D그래픽에서 입체를 표현할 때 쓰는 기본 단위인 다각형) 조각을 형상화해 벽이나 빌딩, 테이블 등



토미 작가가 무료로 배포할 이모티콘.

일상 소재를 표현했다. 돌, 금속, 나무 등 다양한 소재 중에서도 종이를 선택한 이유는 "예술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광주 곳곳을 발로 걸으며 24개 바위를 골라 사진을 찍고 3D스캐너에 담았다. 컴퓨터에 스캔한 바위가 나타나면 3D그래픽으로 만들고 이에 맞춰 종이를 재단했다. 예전에는 일일이 도면을 손으로 그리고 가위로 잘랐지만 지금은 시간 절약을 위해 '플로터'라는 기계를 이용한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폴로 붙이면 작품이 완성된다.

"제 작품은 종이접기 취미로 볼 수도 있어요. 최근 3D프린터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핸드메이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작품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토미 스톡켈이 종이로 만든 바위 작품 'The Gwangju Rocks'를 소개하고 있다.

에 감성을 담기 위해서는 수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토미는 최신 기술에 맞춰 예술가도 변해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금은 인터넷에서 3D 도면을 내려받아 3D프린터를 이용하면 아무나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다"며 "3D작품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좀 더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게 작가들의 몫이다"고 조언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주제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는 토미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예술을 녹여내기 위해 고민하던 그는 올해 초 '스튜디오 폰트(Studio Font)'를 제작하기도 했다. 스튜디오에 있는 석고조각, 조각형 돌 등을 이용해 알파벳을 표현한 글씨체다.

토미는 한국 사람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사용해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종이 바위 작품과 똑같이 생긴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바위가 돌로 갈라진다거나 고인돌 상판석이 갑자기 떨어지고, 무등산 입석대가 분리·합체한다.

"24개 바위로 이모티콘 24개를 만들 생각이에요. 작품 옆 QR코드를 이용해 누구나 안드로이드, 애플 아이폰 등 기종과 상관없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광주에서 비엔날레 작품 영감을 받았으니 바위 이모티콘은 광주 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이의 눈으로 본 일상의 소소한 행복

갤러리5 20일까지 구승희 개인전

한국화로 팝아트를 다루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고 있는 구승희 작가가 20일까지 갤러리5(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개인전을 연다.

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화 20여 점과 함께 본인이 개발한 캐릭터 노트, 스카프, 티셔츠 등을 선보인다.

구씨는 작품에 눈을 크게 표현한 여자 아이를 등장시킨다. 원더우먼 복장을 하기도 하고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있는 아이를 소재로 했다. 투명한 눈동자 안에는 눈 결정체처럼 생긴 별모양을 그려 넣었다. 눈은 인간 내면을 볼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는 작가는 감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결정체를 보여준다.

작품 '행복한 날' 속 미소 짓는 여자는 이는 진실된 눈을 통해 일상에 마주치는 소소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온 가족이 등장하는 '행복은 여기에'는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전해준다.

구씨 작품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에 짜증 등 감정을 소비하는 현대인들에게 마



'원더우먼'

음의 휴식을 전해준다.

구씨는 중앙대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강사를 역임했다.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개인전 9회를 열었고 지난해 광주국제아트페어, 중국 상하이 아트페어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문의 062-384-3132. /김용희기자 kimyh@

고령정보산업학교 학생 작품 전시회

18일까지

북구청갤러리



▶가족공예

광주시 북구가 북구청갤러리에서 고령정보산업학교(옛 광주소년원) 학생 작품 전시회 '함께가는 길'을 18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회는 고령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서 학생들은 한국어성공예작가협회 도움을 받아 만든 냇길, 매듭, 리본, 향초, 민화, 종이, 한지, 가족공예 등 200여점을 선보인다. 가족으로 만든 원

숭이, 소년 캐릭터 열쇠고리, 알록달록 동전지갑 등은 동심을 엿볼 수 있다. 바아울린 모양 시계장식품, 크리스탈 용기에 담긴 향초는 일반 상품들처럼 높은 수준이다.

또 꽃이 그려진 휴지과, 모란이 그려진 민화부채 등을 전시한다.

올해 5회째를 맞는 학생 작품전은 학교 내에서 진행하다 지난 2014년부터 '함께가는 길'로 명칭을 정하고 북구 지원을 받아 열리고 있다. 문의 062-410-66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호남 춤의 명인' 이매방 1주기 추모공연 1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한국 춤의 '거목'으로 일컬어지는 우봉(宇峰) 이매방 명인의 1주기 추모공연이 오는 1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80년 넘게 전통춤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매방 명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등 두 분야의 예능보유자로 호남 춤을 통합해 무대 양식화한 '호남 춤의 명인'으로도 불렸다.

이번 추모공연은 우리 전통춤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지난해 8월 7일 향년 88세로 별세한 이매방 명인을 기리고 그의 제자 70여 명이 '거목의 춤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꾸미는 무대다.

김명자, 채상묵, 한혜경, 오은영, 진유림, 황순임, 김효분, 최창덕 등 제자들이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

풀이춤을 비롯해 정경무, 승천무, 무당춤, 검무, 입춤, 사룡정감, 삼고무 등 고인이 남긴 대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매방 명인의 오랜 예술적 동지였던 안숙선 명창이 특별 공연을 하고 이 명인의 생전 춤사위와 일상 모습을 담은 영상도 함께 소개된다. 문의 02-704-64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 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방수시카프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번호: 10-0562035호
특허번호: 10-1097784호
특허번호: 10-0548195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시험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